*영어어문교육 13*권 1호 2007년 봄

영어교육에서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문화*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Choe, Sook Hee. (2007). Traditional American values and American culture in English edu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1), 261-28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merican traditional values and American culture in English education. The understanding of American culture in English education requires the analysis of world changes in the global age. The history of American English, the 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and the background of natural environment ar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traditional American values of the earliest settlers, such as multi-culture, individual freedom, frontier heritage in the West, equality of opportunity and wealth and material abundance. Hence the case studies of students' project presentations on the American culture in English education exemplify the reflection of American traditional values in the current American life and society. It is concluded that project-based method with regard to cultural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reveals very positive learning effects by driving students' interests and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the student-centered, creative, and cooperative project presentations.

[English education/multi-culture/traditional value/individualism/frontier/equality of opportunity/materialism, 영어교육/다문화주의/전통적 가치관/개인주의/개척 정신/평등한 기회/물질주의]

---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원 기본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영어교육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영어 관련 교과목의 내용과 미국문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영어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며 조사해 보는 것이다. 최숙희와 김성헌(2005)에서 지적하듯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세계 공용어로 고착화되고 있는 영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다른 문화와의 의사소통은 세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되고,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현대인들은 국제적인 다문화 환경에 놓여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미국문화가 우리 사고와 생활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학생들의 미국문화 프로젝트 발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영어 교과내용인 미국문화를 이민으로 생겨난 신생국가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전통적 가치관과 더불어 여러 방면의 예시를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 미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고 올바른 이해는 영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며 인간만의 유일한 선천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언어는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1] 최근 영어교육 환경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생소한 일이 아닐 정도로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문화적, 정서적 거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어 학습은 일종의 문화의 학습이다.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김준호(2003)에서 언급하듯이, 외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순응하고, 문화의 충격과 사회적 거리감을 이해해야 한다. 정상준(2005)에서는 문화란 전통적 의미의 고급문화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고 표현하며 그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중문화를 지칭한다고 지적한다. 문화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각 분야를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1) 문화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되었으며 경작이나 재배를 의미했는데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 B. Tylor)는 문화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의 양식 중에서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 가치관, 목표 등은 그가 속한 문화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www.naver.net.

미국문화에 대한 문화연구 영역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조사해 보겠다. 초기 이주자들이 서부 개척시대를 거쳐 식민지 시대 이후의 신생 민주주의 성립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이주자들로 생겨난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합된 힘으로 이끌어준 동기와 추진력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영어교육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 미국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을 비교해 본다. 이를 위해 이민시대가 주도했던 미국인들의 가치관, 개척시대의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미국 성립에서 핵심이 되었던 독립과 남북전쟁에서의 미국의 가치관을 분석해 본다. 이러한 그들의 가치관이 미국문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사례인 경제 대국에서의 광고방송의 효과, 그리고 다문화주의 속에서의 인종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다.

II. 이론적 고찰

1. 미국영어와 자연환경

1) 미국영어와 미국사회 형성[2)]

미국영어는 미국의 사회형성과 함께 발달하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영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미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영어의 역사는 크게 식민지 시대 (1607-1776), 국가적 시대 (1776-1898), 그리고 세계적 시대 (1898-현재)로 나뉠 수 있다. 지난 400년 동안 미국 영어는 발음과 문법은 조금만 변화했으나 어휘와 화자의 태도는 상당히 변화했다.

식민지 시대로 일컬어지는 기간동안 초기 이주민들은 17세기 동안 영어를 기본어로 사용했으나 영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국영어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영어는 영국영어보다 오히려 보수적이었고, 미국인들은 가능하면 예전에 쓰던 단어나 용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미국영어는 새로운 영토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 단어 사용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영국영어와 구별되는 생소한 낱말이나 구문이 생겨나게 된다.

미국인들은 인디언들이나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서로 의사소통하기위해 그들의 언어도 영어에 차용했다. 그래서 미국영어는 다양한 나라

2) http://college.hmco.com/history/readerscomp/rcah/html/ah_051600_language.htm.

의 언어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 독립혁명전까지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는 비슷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 이후 미국 영어는 영국영어와 확연히 달라지면서 국가적 시대를 맞게 된다. 그리고 Noah Webster가 미국 최초의 영어사전을 편찬하면서 미국영어의 새 기원을 열어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 그는 철자 서적과 문법서, 독본을 출판하여 미국영어의 독립을 주도하였고 미국적인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그는 미국영어는 분명히 미국적인 것이며, 자체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여 독립적인 미국영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영어는 남북전쟁(1861-1865)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스페인, 독일, 아일랜드 같은 이주민의 언어가 미국영어에 포함된다. 이렇게 통합된 미국영어는 교통과 통신수단, 저널이나 교육 등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역에 따른 방언이 별로 없는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영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국제적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1898년의 스페인과 미국 간 전쟁은 미국영어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전쟁 후에 미국영어는 세계 공통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쟁과 상업의 영향으로 미국영어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며 미국문화도 퍼지게 된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호황기를 누린다.

미국영어도 지역, 사회계층, 인종집단,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다. 미국 내에서 4개의 방언이 존재하는데, 남부 방언. 중남부 방언, 중북부 방언 그리고 북부 방언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흑인영어가 가장 많은 민족적 방언을 가지고 있다. 흑인들이 노예 신분으로 미국에 왔을 때, 아프리카의 다양한 부족에서 왔기 때문에 공통어가 없어 미국에 와서 백인들로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또는 아프리카 해안지역의 선원들이나 원어민들이 영어를 기초로 한 혼합어를 썼는데, 노예들이 이것을 배워 미국에 전파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민족적 방언은 히스패닉 영어이다.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뉴욕에서는 프에르토 리코 영어가 있고, 남부 플로리다에서는 쿠바 영어가 있으며, 남서부에서는 멕시코계 영어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 1언어로서 영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늘날 영어는 국제적인 언어이다. 미국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영어는 계속해서 국제어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2) 자연환경과 가치관

미국의 자연환경은 미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지리

적, 지형적 특성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조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미국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미국문화는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서부 개척시대의 고통은 있었지만 자연환경이 가져다 준 금광물결, 은광, 기름진 땅 등으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미국은 지형적으로 구분해 보면 4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동부, 남부, 중서부, 그리고 서부이다. 지역 구분 원리는 미국 형성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준호(2003)에서 지적하듯이, 프레드릭 잭슨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3]는 지역간 갈등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역사의 대부분은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의 갈등과 대립의 투쟁일 수도 있다. 서부 개척지의 변경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아팔레치아 산맥을 넘은 지점부터 태평양연안까지 모든 지역에 중서부나 서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김준호(2003)에서 설명하듯이, 미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는 연대기적으로 4단계로 나타낸다.

- 지방문화시기: 초기 정착지 설립에서 1815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북동부와 남부 지역의 초기 정착지는 주로 영국에 의해 의존되었고 미국 내에서의 상호 교류는 미약했다. 당시는 보스톤과 필라델피아에서만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활동을 했다.
- 지역적 문화시기: 1815년부터 1901년 데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북부의 자본주의, 서부의 개인주의 팽창, 남부의 노예제도가 강한 양상을 띠며 지역적으로 경제적, 종교적, 도덕적인 대립을 했다. 1865년 북부가 남북전쟁을 승리하면서 문화의 주도자가 되었다.
- 국가적 문화시기: 1901년부터 1941년까지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지역들이 미국을 한 국가로 여기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추구한 시기이다.
- 세계문화시기: 194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미국이 국제적인 맹주로 등장하여 국제적 시각이 미국 내의 주요 사회기류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미국 대륙은 지방문화, 지역문화, 국가문화 및 세계문화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므로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

3) 프레드릭 잭슨 터너(1861-1932)는 20세기 초 미국 역사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였다. 터너는 미국의 정신과 성공은 미국 서부 팽창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2. 미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

1) 다문화주의

미국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거대한 크기와 인종의 다양성을 떠올리게 된다. 미국 대륙을 비행기로 횡단하는데 약 6시간이 걸리고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3시간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대륙의 크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은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인 다양성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사회에서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나타낸다.

1492년 콜럼버스(Columbus)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607년 제임스 타운에 영국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사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1620년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한 영국인들 이래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민 사무국 Ellis 섬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와 희망을 살펴보면 미국문화에 대한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4] 미국은 이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Dubos(1990)에 의하면, 미국인의 꿈과 환상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미국을 완전한 자유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꿈꾸고 있었다. 이주를 원하는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하층의 사회적 신분으로 가난하고 지쳐 있었으며, 전제정치와 종교적 탄압, 자원이 고갈된 유럽에서 사회적 속박과 경제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Datesman, Crandall와 Kearny(2005)에 의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인, 일본인들을 포함하여 중부 유럽, 동부 유럽, 그리고 남부 유럽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에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져왔으며 점차 지배적인 미국문화에 동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쟁그윌(Israel Zangwill)은 1908년에 백만 명의 이주자들이 미국에 들어왔던 때를 연극에 쓰고 있다.[5] 그는 미국은 유럽의 모든 인종들, 예를 들어 독일인, 프랑스인, 아일랜드와 영국인, 유대인, 러시아인 모두가 녹아들어서 도가니로 재형성하는 거대한 용광로인 신의 도가니라고 하였다.

미국은 인종적으로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나 샐러드 그릇(salad bowl) 또는 모자이크(Mosaic)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이주해 오면서 설립된 독특한 형태의 미국 사회는 이런 가치관을 낳게 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개

4) http://ellisisland.com/ellis_home.html.

5) 이스라엘 쟁그윌(1864-1926)은 런던 출생의 영국인으로 유대인을 주제로 한 많은 소설을 썼다. 용광로(The Melting Pot)라는 연극은 1908-1909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념은 백인앵글로색슨 신교도(White Anglo Saxon Protestant= WASP)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6] 따라서 미국을 평등한 기회의 이상사회 또는 인종적 융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미 정착된 각 인종 특유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그릇 안에 공동체를 구성해 보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20세기 전반보다는 오늘날 더욱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학교는 이중언어(bilingual) 프로그램과 다문화적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에서 미국문화에 대해 일반원리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인 미국문화의 지배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미국의 생활방식에 대한 고전적인 작품은 1831년 프랑스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을 9개월 방문한 후에 쓴 『미국 민주주의』가 있다.[7] 그는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체계와 민주주의 운용 방식은 물론 민주주의가 미국인들의 사고와 느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했다. 그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녔고 그가 관찰했던 미국인의 특성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간주된다.

2)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

초기 이주자들은 북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유럽사회에서 겪었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식민지를 세우고자 했다. 그들은 유럽 사회의 왕들과 정부, 목사와 교회 그리고 귀족과 귀족정치 등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했다. 1776년 식민지 정착자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1789년에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와 정부를 분리하고 교회의 권력을 제한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와 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정치를 제거함으로써 초기 정착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주의를 인정하게 된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

6) 백인앵글로색슨 신교도들은 신대륙에 백인계 식민지를 최초로 개척했으며, 그들은 신의 선민으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초기의 앵글로색슨계 이주자들은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우월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7) 토크빌(1805-1859)은 프랑스 귀족으로서 당시 25세인 1831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인과 미국의 정부에 관해 두 권에 걸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다. 그는 귀족적 배경에서 파리에서 법을 공부했고 베르사이유에서 대리판사로 일하기도 하며 또한 외교관으로도 일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종교, 언론, 경제, 계급구조, 인종차별, 정부의 역할, 사법 시스템 등의 이슈들이 기술되어있다. http://www.tocqueville.org.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8] 이것은 미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자유에 의해서 미국인들은 정부, 지배계급, 교회 등의 외부 개입 없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욕구와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국인의 자립심은 기본적인 전통적 가치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립심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개척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개척시대의 경험은 1600년대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동부 연안에 정착해서부터 1890년경 서부 지역이 정착된 시기까지 계속된 서부로의 이동을 말한다. 개척시대의 생활은 사회의 규칙들에서 자유로운 반면 사회의 편안함과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자립적으로 주택을 세우고, 가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이러한 자립적인 서부 개척자들은 초기에는 자연, 특히 황야와 싸우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황야의 정복자 역할을 했다. 1890년대 이후에는 서부 개척자들은 주로 인간과 싸우며 선을 수호하기 위해 악에 대항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서부 개척자들은 야생의 서부에서 자립심을 키우며 육체적으로 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개인주의자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를 들 수 있다. 그는 거의 모든 개인은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움은 최소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9]

우리는 많은 미국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데에서 특별한 만족감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서부의 승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길이라는 개념을 보여주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독특하면서도 낭만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인들의 향수는 과거나 황금시기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서부 개척시대의 황야에 대한 향수이다. 이와 같이 이동을 위한 이동이 미국인들의 행동방식이 되면서, 이러한 특징은 좀더 나은 토지와 좀더 나은 사업장소를 찾아 떠나는 미국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개방된 길이라는 개념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3) 평등한 기회와 민주주의

초기 이주자들은 유럽 사회에서 겪었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누구에게나 열려진 평등한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유럽사회에서 마음에 지니고 있었던 비관

8) http://en.wikipedia.org.

9) 이 믿음은 민주당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해리 트루만이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경제대공황 동안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행정을 비난하는데 사용되었다.

론적인 시각을 낙관론적인 시각으로 바꾸게 되었다. 또한 인종, 민족,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미국문화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나아가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생활 자체가 성공을 위한 경주와도 같아,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제공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세우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서부 개척시대에 1889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정착자를 위해 넓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공표되었을 때 수천 명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변경에 모여 가장 비옥한 땅을 찾아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차와 말을 타고 그 토지로 질주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성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평등한 기회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미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은 유명한 연설 "흑인에게도 꿈이 있다 (I Have a Dream)"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나타내고 있다.[10] 그의 연설은 피부색으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평가되는 세상을 꿈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평등한 기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거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각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쟁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미국인들은 경쟁의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의식은 사람들을 활기차게 하며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개념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 기업의 독점을 막는 반 독점법을 시작하게 하였다. 반 독점법은 기업의 불공정한 독점을 막기 위한 미국의 법률로서 미국의 셔먼 법(Sherman Act)을 기본으로 하여 크레이튼 법(Clayton Act), 연방 무역위원회법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회사 AT&T의 권리박탈과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널드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AT&T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의 장거리 통신과 시내 전화사업을 독점해 왔다. 이 회사에 대한 최종 수정판결, 즉 AT&T사의 반 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무부와 AT&T사 간의 소송 사건에 대한 1982년 판결에서, AT&T사는 1984년 1월

10)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media.valenciacc.edu/speech/MLK 에서 찾아볼 수 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8개의 독립 회사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은 전기 통신사업의 구조 조정 및 경쟁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의 자연 환경은 물질적인 부와 노동을 미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유명한 미국 역사학자 데비드 포터(David Potter)는 미국은 지난 3세기 동안 풍요로움, 부, 그리고 풍부한 상품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한다.[11]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국인의 꿈을 나타내는 선전문구가 되었다.[12]

또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 데에는 청교도정신(puritanism)이 기본에 깔려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청교도정신인 경건한 신앙생활, 성실, 근면, 절약, 사랑의 생활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물질적 풍요와 함께 미국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13] 물질주의가 미국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은 물질주의가 사회계급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풍요만이 미국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심어준 것은 아니다. 대부분 유럽의 하층 노동자 계급이었던 초기 이주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원했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은 소유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정당화하게 되었다.[14]

미국에서는 부와 사회계층이 결정되지 않아 누구라도 근면하게 일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평등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미국인은 부의 축적과 유지에 온힘을 기울였으며 미국인의 가치관에 물질주의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강철왕 카네기(1835-1919), 미국의 자본가 록펠러(1839-1937) 등의 전설적인 부호와 애플 컴퓨터의 스티븐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등이 자수성가하여 갑부가 된 것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는 것은 미국인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

11) 데비드 포터(1910-1971)는 미국 역사학자로서 『풍요로운 사람들(People of Plenty)』이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다.

12) 미국의 물질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선전문구로 토니 베네트(Tonny Bennett)의 노래로 유명하며 미국인들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통 근로자가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

13) 막스 베버(1864-1920)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저서로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이 있다.

14)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도 소유권은 자유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부를 선호하는 현상은 부가 사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물질주의와 관련하여 부에 대한 개념이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면서, 근면하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보상, 성공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물질주의적인 기준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판단기준으로도 삼으며, 미국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Datesman, Crandall와 Kearny (2005)에 의하면, 초기 개척시대에 제공된 무한한 풍요와 천연자원은 미국인들에게 낭비의 습관을 가져다주었다. 1860-1920년 사이는 이민의 집중화와 산업화로 대부분 부의 생산과 축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라디오의 등장, 195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 그리고 1980년대에는 97%의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전 국민이 광고대상이 되었다. 생산자들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Delk(1997)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미국을 생산위주의 국가에서 소비위주의 국가로 만들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막스 레너(Max Lerner)는 미국인의 상품 기호에 대해 편안함, 깨끗함, 새로움, 그리고 편리함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의 상품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인 햄버거와 같은 즉석 음식은 그들의 편리함을 강조한 결과이다.

하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2004년 2분기 평균 주택 가격이 1979년 이후 최고수준까지 상승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등 부대비용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4년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은 33%가 오른 반면 개인소득 수준은 단지 10.4%만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택시장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15] 또한 미국에서는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최상위 1%의 소득이 최하위 40%의 소득을 앞질렀고, 부유층 280만 명의 세후 소득은 전체의 15.5%이고 최하위 1억1천만 명의 소득은 전체의 14.4%를 나타내고 있다.[16] 이와 같이 미국 경제의 하락은 미국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난한 근로자들에게는 미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아메리칸 꿈이 멀어져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물질주의에 대한 믿음과 현실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미국은 임금 불균형에 있어서 세계 상위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누구나 자기의 꿈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다는 강인한 개척 정신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15) http://www.kotra.or.kr.

16) http://www.kotra.or.kr.

III. 연구 방법 및 연구발표 사례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 영어의 관련 교과목인 <영어와 미국문화> 강의를 통해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미국문화를 비롯한 외국문화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서 누구나 간편하고 익숙하게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 학생들에게 영어 관련 교과목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를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서 찾아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미국문화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별 프로젝트 발표를 유도하여 강의를 통해 배운 미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강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의 자료와 이론과 방법론을 찾아서 스스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재호(2005)에서 제안하듯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방법론은 학생들에게 관련짓기(making connections)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복합적인 비교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2. 연구 프로젝트 발표 방법

영어 교과목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모두가 조별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하였다.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이전의 교재 중심의 학습 방법보다는 학생들에게 교재에서 토의한 내용과 관련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한다. 김남순(2005)에서도 지적하듯이, 프로젝트 학습법은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학습내용을 구성해내는 민주적인 학습방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사용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물의 산출에 힘을 쏟게 된다.

수강학생은 40명으로 제한하여, 학생들은 세 명이나 네 명씩 조를 구성하였다. <영어와 미국문화> 강의는 학부의 선택과목이므로 학년이나 학과에 관계없이 관심주제별로 다양하게 조를 구성하게 하였다. 교과에서 논의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문화의 전반적 분야에서 찾아내고 분석하여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함으로

써 학생 전원이 흥미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영어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조별 프로젝트는 모두 빔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활용, 컴퓨터의 동영상, 매스미디어의 활용, 파워 포인트 발표 등으로 프로젝트 발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덕택으로 이론 중심의 학습방법보다는 학생들 중심의 조사・연구・발표하는 학습방법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활동 참여를 확대시킨다. 또한 조별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동심과 창의성까지 유도할 수 있어 학습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3. 연구 프로젝트 발표 사례

미국문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발표는 문화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역사, 대도시 소개, 미국 대통령들, 총기 문화, 축제 문화, 미국 음식, 메이저 리그 야구, 미식축구, 미국의 대학교육, 놀이 문화, 미국 음악, 미국 패션, 소수 민족 등 다양한 분야가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젝트 발표인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TV 광고, 그리고 흑백 인종갈등의 변천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교육에서 익힌 이론적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응용하는지를 살펴보겠다.

1)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TV 광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물질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에 미친 광고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 광고라는 말은 라틴어의 '돌아보게 하다(advert)'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복해서 부르짖음으로써 고객의 주의를 끌게 한다는 것이다.

본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시작된 광고는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다. 광고는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상품 판매나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이성적인 근거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감성에 근거한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광고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적 가치들이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V 광고는, 모든 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문자,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와 암시를 함축한 영상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TV 광고의 활성화는 스스로를 생산자로 인식하던 미국인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미국의 TV 광고에는 미국 사회의 고유한 가치관

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다시 TV 광고는 이러한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서로 상호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17]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들, 즉 개인적 자유, 기회의 평등, 개척 정신, 다양성, 물질주의 등이 미국 TV 광고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되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성향을 파악하고 개별 사례를 분석하면서 조사해 보고자한다.

(1) 개인의 자유

미국 사회는 어떤 다른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며 개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초기 이주자들부터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여 이어온 이러한 개인주의 전통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희연과 김정우(2005)에 따르면, 미국의 TV 광고는 다른 나라들의 TV 광고보다도 표현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이다. 자사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여주는 것은 물론 경쟁 제품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타사 제품과 비교하거나 타사 제품을 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버거킹 광고가 있다. 버거킹은 자사의 제품이 맥도날드 제품보다 품질에서 우위인 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인 로널드를 등장시킨다. 로널드까지도 햄버거를 먹을 때는 버거킹을 이용한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버거킹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미국문화를 잘 반영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 평등한 기회

미국 사회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미국사회를 경쟁이 심한 사회로 만들게 되었다. 평등한 기회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김희연(2001)에 의하면, 이러한 경쟁을 당연시 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은 미국 TV 광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비교 광고가 주요한 광고 기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① 펩시와 코크: 광고 모델 기용

미국의 대표적인 음료인 콜라는 펩시와 코크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여러 가지 비교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위를 알리고자 하여 이러한 경쟁 관계는 광고 모델의 기용에서도 나타난다. 펩시는 대표적인 아이돌 팝스타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코크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모델로 출연시켜 외적 부분을

17) www.tvcf.co.kr.

통해 경쟁하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② 펩시와 코크: 내용 비교

광고 내용에 나타난 비교 광고의 요소를 통해 경쟁이라는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내용은 펩시를 좋아하는 한 꼬마가 자판기에서 뽑으려고 하지만 키보다 높은 곳에 펩시 버튼이 위치해서 펩시를 뽑을 수 없자 꼬마는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코크를 두 개 뽑아 이를 발판으로 사용하여 펩시를 뽑는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 속에서 펩시는 코크보다 버튼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 펩시의 인기가 더 좋다는 것과 코크는 펩시를 뽑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펩시의 비교 우위를 표현한다. 미국에서 비교 광고 기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경쟁이라는 요소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개척 정신

개척 정신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서부 지역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었고 계속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서부지역의 개척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은 서부로의 진출을 부추기는 촉발제가 되었다. 하지만 서부로 떠난 미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과 싸워야 했고, 후에는 미국 원주민이나 범죄자들과 같은 인간들과 싸워야 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남성적이고 강한 육체적 능력을 지닌 영웅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다음의 TV 광고 속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① 리바이스 TV 광고: 자연과 황야에 맞서서

미국의 대표적인 청바지 리바이스(Levis) TV 광고에는 미스터 붐배스틱(MR. Boombastic)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미국의 남성적인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캐릭터는 남성적인 외모와 굵은 얼굴선, 근육질의 몸매를 통해 강한 육체적 능력을 보여주며 재난 상황에서 미녀를 구하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개척시대에 거친 자연환경이나 재난 상황과 싸워나가는 미국 개척자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② 펩시 TV 광고 - 인간에 맞서서

개척 정신이 미국의 남성적 영웅의 요소로 반영된 예는 펩시 광고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두 개의 축구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축구 스타들을 등장시켜 서부 개척시대의

결투 장면을 축구를 이용한 결투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서부 개척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남성적인 강인한 스포츠 스타를 등장시킴으로써 개척 정신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물질주의

미국 사회에서는 물질주의가 부도덕의 상징이 아닌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미국인들의 노력은 물질적인 풍요를 낳았고, 이것은 미국 사회가 소비 지향적 성격을 띠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물질적 부의 추구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물질적 부를 이룬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TV 광고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네 가지 가치, 즉 편안함, 새로움, 편리함, 그리고 청결함을 충족하고 강조하려는 성향이 나타나있다.

① 리바이스 TV 광고: 편안함과 새로움

리바이스 상품은 편안하고 실용적인 의복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품의 목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편안함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으며 Levis의 TV 광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편안함이 강조된 리바이스 TV 광고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의 편안함을 강조한다. 평소에는 불가능한 움직임이 리바이스를 입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편안함을 강조한 TV 광고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새로움을 강조한 리바이스의 TV 광고는 좀 더 과장되어, 리바이스를 입으면 지구보다 발전된 다른 행성에 가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앞서 있음을 나타낸다.

② SBC 네트워크 TV 광고: 편리함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인 SBC 네트워크의 TV 광고는 편리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TV 광고에서는 SBC 네트워크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상품의 디자인부터 홍보, 배달 그리고 관리까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편리함이란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TV 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미국사회에 남아있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국가나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기반이 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문화를 이해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있는 TV 광고를 분석해 보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 되었다.

2) 미국의 흑백 인종갈등의 변천

미국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지니고 백인, 흑인, 황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모든 인종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 사회 내에는 인종 불평등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흑백 차별과 그 배경, 그에 따른 흑인들의 반발과 극복 노력,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보겠다.

(1) 인종차별의 배경

인종이란 생물학적 특징인 피부색・혈액형・모발 등으로 인류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인종문제는 인종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말한다. 인종문제의 전형은 유색인과 백인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종주의는 지능과 도덕적인 능력 차이에 관하여 태어날 때부터 유색인보다 백인이 우수하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에 의하여 백인들은 그들의 지배와 유색인의 예속, 권리박탈 등으로 인종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반증으로 인도 중국 아랍의 고대문명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은 근세 이후 유럽 중심의 세계사에만 관심을 두어 세계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① 인종차별의 계기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고 유럽에 수출할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그들은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수입하게 되었고 흑인노예제도는 식민지제도의 발달과 병행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노예무역에 의해 많은 흑인노예들은 시장에서 경매에 팔렸고, 흑인노예를 산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매질을 하며 무지함을 강요했다. 영상을 통해 대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인권이 완전히 부정당하였지만 노예제도는 많은 주에서 정식으로 입법화됨

으로써 공인되었다.

인종차별을 제도화함으로써 유색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였으며 유색인의 기본인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였다. 유색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차별제도가 급격히 개편되어도 개인의 정신구조는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인종차별이 철폐되어도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인종편견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② 미국의 독립운동

흑인노예들은 영국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 일어난 미국독립전쟁에서 그들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립혁명군에 가담하여 저항하거나 투쟁하였다.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독립선언서의 취지대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 노예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헌법제정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초안은 참석한 위원 55명이 대부분 보수적인 성격이었으므로 독립선언서의 내용보다도 상당히 후퇴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의 기반을 뒤흔들 노예의 해방은 더욱 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③ 미국의 남북전쟁

19세기 초 눈부시게 발전하는 서부의 개척과 더불어 미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노예문제와 관련해서 남부와 북부의 커다란 대립이 생겨났다. 남부의 대농장주인들은 자유 분권을 주장하면서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바랐지만, 북부는 근대 공업의 발달로 시민계급이 주도권을 쥐고 보호무역과 중앙집권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1860년 북부 출신의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여러 주는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그 다음 해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연방제도와 민주주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노예해방을 선언하고 1865년에는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 결과, 노예해방은 자유라는 좋은 결과를 남겼지만, 남부의 대농원제도가 붕괴되고 노예들의 빈민층이 증대하고, 인종차별 풍조가 고질화되는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반면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 백인들은 다수의 비밀결사를 통해서 흑인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나 남부에서 북부 군이 철수한 187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백인이 지배하는 남부가 됨으로써 폭력 대신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성행하게 되었다. 1880년대 이후에는 흑인문제를 둘러싼 남북부의 백인들의 대립은 점차 해소되고 오히려 백인 대 흑인이라는 인종적 대립이 표면화하는 것

이다.

④ 현재까지의 변화

흑인 인종문제는 추상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보다도 경제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흑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중에 흑인은 집단적으로 투쟁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흑인들은 '전국흑인향상협회'를 만드는 등 투쟁에 힘쓰면서 양 인종간의 대립은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다. 결국 인종차별 문제는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2) 인종차별 철폐운동 사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이다. 1955년, 버스 내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흑인 여자 재봉사가 흑백 인종분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자 King 목사는 흑인들의 버스 안타기 운동을 주도해 흑인 인권운동의 기수로 등장하게 된다. 그는 이후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이끌면서 평화적 흑인인권운동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1963년 워싱턴에서 전국에서 모인 흑인 수십만 명이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서 킹 목사는 앞서 언급한 '흑인에게도 꿈이 있다'는 명연설을 남겼고 흑인들은 '우리 승리하리라'를 합창하며 행진했다.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은 미국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1964년 1월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 그 해 말 그는 흑인인권신장의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 내에서는 1964년 흑인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를 규정한 시민권법이 의회를 통과해 흑인 인권신장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가 미국의 참전을 반대하면서 미국정부와 흑인지위향상협회 같은 보수 인권단체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정철수(2005)에 의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흑표범 맬컴엑스(Malcolm X) 등의 폭력투쟁론이 흑인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킹 목사는 워싱턴에서 다시 대규모 평화시위를 계획하고 동분서주하다가 1968년 4월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론자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킹 목사의 암살에 격분한 흑인들은 전국 대도시에서 무력폭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인종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킹 목사의 영웅적 투쟁은 많은 흑인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심어주었고, 흑인들의 인종적 일체감과 단결을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흑인들은 활발히 인권신장운동을 계속해 나갔으며, 오늘날 흑인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백인들과 완전한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인종차별의 사례[18)]

한국일보 2002년 03월 26일 뉴스에 따르면, 제7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덴젤 워싱턴과 할 베리 두 흑인배우가 남녀 주연상을 수상하자 미 언론들은 흑인들의 쾌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베리는 수상 소감에서 "이름 없고 얼굴 없는 모든 유색 여인들에게 이상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순간 카메라가 초점을 맞춘 것은 객석에 앉아 있는 한 백인 여성이었는데, 그 분은 베리의 어머니 주디스 여사였다.

미국은 관습적으로 인종을 분류할 때 한 방울 원칙을 따른다. 단 1%라도 흑인 피가 섞였을 경우 흑인으로 분류된다. 어머니가 백인이라도 절반의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은 다인종국가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엄연한 현실에서 흑인 여부는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베리는 한 방울 원칙에 따라 분명 피부가 갈색인데도 흑인 배우로 불려왔고 자신도 그런 대우를 수용해 왔다. 순수 백인만이 백인이라는 순결 원칙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골프계의 스타인 타이거 우즈는 1997년 마스터스대회 우승 직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나는 흑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충격을 던졌다. 우즈는 "태국인 어머니와, 흑인 백인 및 아메리카 인디언의 혼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동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나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캐블리네시언(Cablinasian)'으로 불리고 싶다"고 밝혔다.[19)] 그러나 우즈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흑인으로 남아있다.

Ⅳ. 결론

대학영어 교육 현장에서 미국문화 교과목의 내용들을 예시하며 조사해 보았다. 오늘날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영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미국문화 교과목은 영어교육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국영어와 미국사회 형성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자연환경과 가치관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였다. 미국영어

---

18) 조별 발표에서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흑백 인종갈등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영화에는 아미스타드, 말콤 X, 타임 투 킬, 게스 후 등이 있었다.

19) 캐블리네시언은 코카서스인(백인), 흑인, 인디언, 그리고 아시아인의 혼혈인이다. (Datesman, Crandall & Kearny, 2005).

가 세계어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역사는 미국의 사회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미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자연환경은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통하여 미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초기 이주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 후 축복의 땅에서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자유와 평등한 기회로 낙관론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국문화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을 대변하는 다문화주의의 배경과 특징, 개인주의와 서부 개척시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룬 평등한 기회, 그리고 많은 이주자들에게 미국인의 꿈을 키워준 부와 물질적인 풍요를 보여주는 물질주의 등을 자료와 영상,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미국문화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조별 미국문화에 대한 프로젝트 결과물의 일부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미국인의 생활과 사회 속에서 반영되고 활용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강의 전반에 걸쳐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와 이론과 방법론을 찾아서 스스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문화관련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인 관련짓기를 유도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 실생활의 문화 속에서 이론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학생 모두가 조별로 프로젝트 발표를 한 결과, 그 학습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구성해 나갔다.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주제에 관련된 자료수집과 언어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물의 산출에 힘을 쏟았다. 또한 인터넷의 활용, 컴퓨터 동영상, 매스미디어의 활용, 파워 포인트 발표 등으로 프로젝트 발표는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한 학생들 중심의 조사・연구・발표 방식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활동 참여의 확대는 물론 공동연구의 협동심과 창의성까지 유도할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참 고 문 헌

김남순. (2005). EFL 상황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법 활용 방안. *영어어문교육, 11*(1), 57-76.

김준호. (2003).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제일문화사.

김희연. (2001). *광고 콘텐츠의 신세계*. 서울: 진한엠엔비.

김희연, 김정우. (2005). *광고, 소비자와 통하였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노재호. (2005). 미국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연구 방법론. 정연선 외 (편), *한국에서의*

미국학: 이론과 실제 (pp.33-57).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정상준. (2005). 미국학 관련 과목 개발의 실례. 정연선 외. (편), *한국에서의 미국학: 이론과 실제* (pp.166-194).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정상준, 황혜성, 준수용. (역). (1990).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정철수. (역). (2005). *맬컴 X vs 마틴 루터 킹.* 서울: 갑인공방.
최숙희, 김성헌. (2005). 전략적 방법을 활용한 역할극 연구: 언어습득시기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1*(1), 203-224.
Datesman, M. K., Crandall, J., & Kearny, E. N. (2005). *American ways: An introduction to American culture.* (3rd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Delk, C. L. (1997). *Discovering American cultur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Dubos, R. (1990). Discovering America. In Shinasa (Ed.), *Advanced current English* (pp. 244-251). Seoul: Shinasa.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Higher

최숙희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73-1
Tel: (042) 869-4614
Fax: (042) 869-4610
E-mail: shchoe03@kaist.ac.kr

Received in Jan. 2007
Reviewed by Feb.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 2007